

간병·호스피스 봉사단 잇달아

천태종, 니르바나 자원봉사회 발족·활동 고양시불교사원련, 천수천안 봉사단 창단



4월 '니르바나 자원봉사회' 창립식에 앞서 천태종 복지재단 정책실장 시용스님이 '장례문화'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간병 및 호스피스를 전문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이 천태종과 고양시 불교사원연합회에서 잇달아 창립됐다.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시용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말기환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인 '호스피스'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4일 전문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을 창립했다. 종단차원의 자원봉사단 창립은 조계종에 이어 두 번째다.

천태종복지재단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지난 4월 27일부

터 서울 관문사에서 실시하고 40여명으로 구성된 제1기 '니르바나 자원봉사회'(회장 정학식)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천태종은 심화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성과 불심을 갖춘 자원봉사단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소 사무소가 있는 부산 삼광사와 대구 대성사 자원봉사단 등 사찰 자원봉사회 연합도 결성,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비행을 펼칠 계획이다.

천태종복지재단 정책실장 시용스님은 "앞으로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불교호스피스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임종환자 및 말기환자를 위한 각종 보호(care) 프로그램의 전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불교사원연합회(회장 홍선, 무량사 주지)는 11일 오후 2시

고양시 덕양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광명사, 흥국사, 성보사, 자비정사 등 고양시내 10개 사찰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한불교 천수천안 자원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홍선스님은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간병이나 호스피스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불교의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드물게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창립된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의 활동분야는 이·미용, 차량보조 등 간병봉사와 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를 비롯해 정서봉사(말벗, 상담, 인부전화 등), 행정봉사, 학습봉사(결혼상담, 장애아동 대상, 인터넷 검색, 가사봉사(도사탁 배대, 경로식당 봉사 등), 특기봉사(생물체조, 수지침, 발맞사지 등) 등으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창립된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은 6월부터 간병 전문교육과정, 발반사요법 및 한방요법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 봉사단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31)969-0108

김재경 기자 jgkm@buddhaya.com

신행 365일
이제 실천이다

온 가족이 '포교사'

5월-전법의 달

- 전법의 공덕
- 포교도 수행이다
- 온 가족이 '포교사'
- 누구나 전법사

"포교의 출발지는 가정 가족간 화목이 원동력"

"포교의 출발지는 가정입니다.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불교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굳이 포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가족부터 불자로서 하나가 될 때 가족간의 화목은 물론 포교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포교사로서 사회 속에서 배운 바를 회화하는데 앉아서 있는 오경화(42)·김대권(46) 부부의 말이다. 오경화·김대권 부부의 가정은 3대가 모두 불교를 믿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다. 아직 철모르는 중학교 3학년이 다니는 큰 아이는 물론 초등학교 5학년인 작은 아이까지도 108배를 능히 해낸다.

오경화 포교사는 결혼하기 전 종교가 없었다. 결혼 후 신심이 두터웠던 시부모님을 통해 본 불교에서 매력을 느끼고 남편과 함께 동산불교대학에 입학, 공부를 시작했다.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시부모님의 삶을 보고 스스로 불교를 접하게 됐으니, 시부모님의 포교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불교를 믿지 않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님은 불교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

96년 불교대학을 졸업한 오씨는 남편 김 씨와 함께 부부 포교사가 됐다. 오 씨 부부가 선택한 포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복지관 자원봉사를 통한 포교도 벌써 6년째다.

"가족의 후원을 바탕으로 남편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서로 뜻이 통하니까 부딪칠 일이 없거든요. 더 큰 사랑을 키울 수 있고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불

교를 갖고 포교활동을 하는데서 얻는 장점을 오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박세만(61)·김구원(56) 부부는 세아들을 둔 포교사 가족이다. 박세만 포교사는 자영업자를 하며 통나는 대로 함림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교와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부인 김구원 포교사도 함림사 합창단장으로 활동하며, 남편 박세만 포교사와 함께 함림사 사찰안내 포교를 맡고 있다. 박세만 포교사는 개신교 신자였다. 하지만 불심이 깊은 아내 김 씨의 권유로 불교를 접한 후 불교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부가 함께 포교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들 부부의 포교활동에는 가족들의 든든한 후원이 따르고 있다. 세 아들 중 큰아들 진의(38) 씨와 막내아들 주연(34) 씨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직장에서도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의·주연 씨는 불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에서 무언의 포교를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였던 며느리들도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했다. 큰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불교대학을 다니기도 했다. 이렇게 박세만·김구원 부부의 가족은 모두 불자가 됐다.

박세만 포교사는 "함께 신령을 하나씩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돼 가족사랑이 두터워지고 화목해진다"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찰에 갈 때면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오경화·김대권 부부와 박세만·김구원 부부의 사례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포교가 가정의 화목과 지속적인 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박봉영 기자

한·미얀마 친선교류협 발족

명예홍보대사 홍파스님·박찬수·김홍국씨

한국·미얀마 친선협회(회장 혜은스님)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미얀마의 날' 선포식을 갖고 존엄총 총무원장 홍파스님, 박찬수 동아불교박물관장, 가수 김홍국, 이은하씨와 재가불자인 박종성씨 등 5명을 홍보 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우 뉴망해인 주한 미얀마 대사와

송 본상 미얀마 태국 대사, 다토압나 만하이드 부부나미 대사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 회원들은 한·미얀마 친선교류 증진과 주한 미얀마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등을 발원했다.

김재경 기자



6월 3천여 호련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논산호련소 봉축기념 법회.

논산호련소 호국연무사

봉축법회·교육관 기공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5일 육군호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봉축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축기념 법회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련소의 호련이 고되고 힘들겠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계를 리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 종회 포교 본과위원장 정국스님(갑사 주지), 김길연 28연대장 등과 3천여명의 호련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법회는 육군호련소 이광희 소장의 축사와 불자기수회의 위문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포교사(단장 김대권이 연주와 피자 등이 들어 있는 5천여 개의 '자비의 선물'을 호련병들에게 나눠줬다. 이와함께 봉축 기념법회가 끝난 뒤에는 호국연무사 옆 150여평 위에 세워질 교육관 신축 기공식도 열렸다. 김재경 기자

"사찰문화재관람료 600원 환불"

전주지법 원고승소판결

전주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병식)는 8일 오후(전주지 법원)씨가 전북 진안군 미안산 도립공원의 입장료와 공원내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당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관람료 600원을 돌려주라'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답이 없어 누구나 볼 수 있는 데다 미안산 관광도로가 경내를 통과하는 만큼 미안산 탐사 관람료 600원의 징수는 정당하다며 탐사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마이산을 찾았을 뿐 사찰(금당사)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사가,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다 관광도가 사찰 돌담 옆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찰공간과 공원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어 우씨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말 미안산공원에 도로를 통과하면서 도립공원 입장료 800원과 함께 사찰내 문화재 관람료 1천200원을 함께 지불한 뒤 합동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경숙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슨길 아바타 센터 전주주최는 본래는 인내 자비를 보여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부처하는 서울 종로구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비구니회 법륜사 만불전 봉불식

사부대중 1천명 참석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공우스님)는 4일 강남구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법륜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륜사 만불전 봉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공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비구니들의 열연인 회관건립을 계기로 비구니 스님들의 지도력을 키워 포교와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봉선사 조실 원운스님,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 봉선사 주지 일면스님, 한나라당 불지회 합동회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만불점안식'에 이어, 2부 '봉불식'에서 고산스님의 법어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격려사(총무부장 원택스님 대독), 동국여경원장 원운스님과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의 축사, 한마음선원장 창단의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



7천여 비구니스님들의 수행·포교·교육도량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4일 가행된 전국비구니회관 만불전 봉불식에서 비구니회 회장 공우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편 전국비구니회가 최근 비구니스님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비구니회관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비구니스님들은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중흥 정책의 개정(35%), 비구니의 지도력 증대(15.8%), 비구니 교육 강화(14.3%), 비구니의 종단활동 강화(12.9%), 비구니 조직 강화(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구니 위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구니스님들의 잘못된 인식(55.6%),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계층상의 문제(19.2%), 중흥 정책상의 문제(8.6%) 등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

됐다. 한국 사회에서 비구니스님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 활동(47.4%), 포교활동(19.9%), 신도교육(12.5%) 등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또한 비구니 대학원 설립과 관련 58%가 찬성을 표했으며, 대학원 설립유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44.2%), 단기 대학원과정(33.4%), 종단 인정 승가대학원(19.9%) 등으로 답했다. 김재경 기자

키르키즈스탄 극빈자 등에 구호품

법웅스님, 해제때마다 참선지도·포교도



제방 선원에서 25년간 안거를 지낸 수좌 법웅스님(전국선원수좌회 실행위원)이 9년전부터 해제 때마다 키르키즈스탄에서 참선을 지도하고 불우이웃을 도와 화제다.

법웅스님(사진 오른쪽)은 2일 키르키즈스탄 공화국 수도 비쉬켅시 '우정의 건물'에서 마련한 '마음 나누기 행사'에서 고아원, 극빈자 등을 위해 200포대의 쌀과 1500명분의 기생충약, 3대의 물리치료기를 전달했다.

부처님오신날 기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스님이 불암사 태고선원에서

해제 때마다 지도해 온 보리사찰자 회(회장 김 왕레리 니콜레비치) 주관으로 열렸다. 7일 귀국한 법웅스님은 "쌀 한 숟가락을 모아 어려운 이들에게 공양하는 전통적인 가반(加飯)의 식을 본받아, 구호품을 전달했다"며 "수좌들도 해제 때에는 포교와 보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부처님 마음에 담았어요" 부처님그리기 대상 박정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만큼 부처님 을 마음에 담았어요"

원간 <불광>과 봉은사, 목야박물관이 5일 봉은사에서 공동 주최한 '제8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뚝 으뜸승(문화관



김철우 기자

관음종 열쇠부대 종각 OP 점등식



관음종은 8일 저녁 중부전선 5사단 열쇠부대 통일각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민족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종각OP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행회에는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관음종 스님들과 5사단장, 군지휘관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625개의 연등이 점화되는 순간 그 밝은 빛이 북한땅의 동포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고루 비추기를 기원했다.

안동 봉정사에 '작은 극락전'



보수공사가 진행중인 국내 최고(最古) 목조건물인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을 축소한 '작은 극락전'이 선보였다.

봉정사는 최근 지역 고건축 전문가 민영기(31, 안동시 정하동)씨가 현재 보수공사로 관람이 불가능한 극락전의 10분의 1 크기(가로 140cm, 세로 100cm, 높이 80cm)로 모형을 제작해 기증함에 따라 이를 극락전 앞에 설치했다.

봉정사내원인 홍수경씨(사진)가 건축구조에 대한 해설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